

## 영국, 고층 주거용 건축물 외장재 교체 위한 지원사업 발표

<https://www.gov.uk/government/news/government-to-bring-an-end-to-unsafe-cladding-with-multi-billion-pound-intervention>

<https://www.architecture.com/knowledge-and-resources/knowledge-landing-page/extra-cladding-funding>

영국에서 6층 이상 주거용 건축물의 가연성 외장재를 교체할 경우 그 비용을 정부로부터 전액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2월 영국 정부는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대대적인 지원사업 계획을 발표하였다. 로버트 젠릭(Robert Jenrick) 영국 주택부 장관은 “이번 대책을 통해 안심하고 주택을 사고팔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주택시장이 신뢰를 회복할 것”이라고, 대책의 목표를 밝혔다.

먼저 50억 파운드(약 7조 8,292억 원)를 투입해 18m(6층) 이상 주거용 건축물의 가연성 외장재(cladding) 교체 비용을 전액 지원한다. 영국 정부에 따르면 건축물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사망하거나 크게 다칠 확률이 18~30m의 건축물인 경우 그렇지 않은 건축물보다 4배 높다.

이러한 분석에 따라 위험군인 18m 이상의 건축물에 재정을 우선 투입한다. 다소 위험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는 11~18m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외장재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장기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였다. 영국 정부는 “계획대로라면 외장재 교체를 위해 월 50파운드 이상 비용을 지불하는 주택 소유주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이와 함께 앞으로 영국에서 고층 건축물을 짓고자 할 때는 개발자가 부담금을 내야 한다. 개발자는 고층 건축물 허가를 요청하는 단계에서 책정된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또 외장재 교체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주거용 부동산 개발에 대한 추가 세금이 책정된다. 영국 정부는 “이러한 조치를 통해 10년간 최소 20억 파운드를 거둬들일 방침”이라며 “이는 주택시장이 신뢰를 회복함으로써 거래가 활발해질 때 부동산 개발사들이 얻을 수 있는 반사이익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영국 정부는 무엇보다 2021년 건축안전과 관련된 규제를 강화하고, 다시는 그렌펠 타워(Grenfell Tower) 화재와 같은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건축자재 관련 제도를 재검토하는 법안을 상정해 국민 안전을 확보할 방침이다.

한편 그렌펠 타워 화재 사고 이후 영국 정부의 대응을 지속적으로 비판해 온 영국왕립건축가협회(Royal Institute of British Architects: RIBA)는 이번 대책에도 실망스럽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관련 대책이 신속히 나오지 않은 점을 비판한 RIBA는 “지원 대상을 18m 이상 건축물에 한정하는 것은 그 외 주택 소유주와 거주민을 보호하지 못하는 소극적인 대책”이라고 지적하였다.



화마에 휩싸였던 런던 그렌펠 타워

©Shutterstock